

영광군 묘량면, '여민동락공동체 새 터전 이전식' 개최

지상1층 연면적 1,467㎡·건축면적 489.23㎡ 규모

노인복지센터·공유식당 및 사회적 농업 등 공간 활용

영광군 묘량면에 위치한 '여민동락 공동체 새 터전 이전식'을 지난 26일(토)에 개최하였다.

이날 이전식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강필규 영광군의회위원장 등 도·군의원, 묘량 기관·사회단체장, 여민동락 후원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신축 건물은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이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지역사

회 지원사업'에 직접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지상1층 연면적 1,467㎡, 건축면적 489.23㎡의 규모로 노인복지센터와 공유식당 및 사회적 농업, 청년 창업 활동 공간 등으로도 활용하여 지역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여민동락 공동체는 사람, 지역사회, 자연이 조화로운 자주와 공생의 농촌공동체로 나아가고자 지난 2007년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16

년 동안 지역민의 교육과 문화, 복지과 경제 부흥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온 공동체로서 행정 안부 주관 우수마을 기업 선정 등 다수의 수상 경력도 있다.

권혁범 여민동락 이사장님은 '여민동락 공동체가 묘량의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한층 배가하고, 정든 고향에서 건강하게 나이들이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역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여민동락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영광군도 사회적 경제와 가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합평군, 콩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교육 실시

합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콩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교육을 지난 28일 실시했다.

합평군은 콩 맞춤형 컨설팅을 콩 파종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콩 시범사업 참여 농가 및 콩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콩 전문가인 이상복 박사과 국립식량과학원 이승균 지도사가 컨설턴트로 나서 콩 재배현장 진단 후 물관리, 염면시비,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한 콩 재배 중후기에 잡초 제거를 철저하게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비가 20

일 이상 내리지 않을 시 관수를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노린재가 콩에 많은 피해를 주므로 원활히 콩을 수확하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7~10일 간격으로 방제 약제를 2~3회 살포하고 염면시비를 해야한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농업인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평=김광훈기자

신안군공립요양병원 '2022년 공공사업 성과평가' 전남 1위

신안군은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이사장 이충만)이 '2022년 공공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요양병원의 공공 치매 관리기능 수행평가를 목적으로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 따라 운영 인력 및

조직 구성, 예산 투입 및 집행 필수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에는 공립요양병원 12개소가 평가 대상이며,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은 총점 85점을 획득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A(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남 1위를 달성했다.

신안=이택주기자

무안군,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 재해 예방 안전 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무안군은 지난 29일 2023년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6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주요 야외 환경정화나 공공시설 청소와 같은 외부 현장업무가 대부분인데 최근 폭염 및 호우 등 기상 이변으로 위험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에서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사고대처 교육을 실시해 현장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사고 후 올바른 대응 방법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재영 차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근로 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사고, 교통사고 예방, 폭염 대응 요령 등 다양한 위험상황에 관한 사례

를 설명하며 일자리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하반기 일자리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사업 참여자분들께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전국 디저트 경연대회 '목포랑 cafe show' 성료

젊은 층 기호 공략 디저트 개발...김선희·김도영 氏 해미(海味)주약 '최우수상'

목포시가 지난 26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전국 디저트경연대회 '목포랑 cafe show'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목포 해관 미식문화갤러리 1897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리고, 목포만의 특색있는 디저트 레시피 발굴을 목표로 젊은 층의 기호를 공략하는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본선 경연 참가자들은 중·고등학생과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했다.

이날 심사는 본선에 진출한 10팀의 메뉴를 음식의 완성도, 맛, 창의성, 대중성 및 보급 가능성, 청결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심사위원과 사전에 모집된 시민 푸드 특파원의 평가로 최종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김선희(52/목포)·김도영(53/목포)씨의 해미(海味)주약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

지했고, 이어 한경주(25/광주)씨·유은서(22/광주)씨의 과사 핫도그·김말이 핫도그, 장명하(23/무안)·장재영(24/제주)씨의 무화과 다쿠아즈·비파푸딩·세발낙지 봉어빵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한, 홍신혜(34/무안)씨의 1층 김파운드 케이크, 정민정(24/목포)씨의 목포해관샌드, 김수진(17/목포)·정환희(14/목포) 학생의 비바비파 무스케이크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디저트 요리를 접한 시민들은 출품된 디저트 음식 대부분이 독창적이고 비파 등 목포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선보여 흥미로웠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김선희(52)씨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리를 시작해 디저트까지 만들다 보니 이번 경연대회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할 뿐 아니라 전통이 가미된 디저트



를 구상하게 됐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디저트 뿐 아니라 목포만의 특색있는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수상 메뉴들에 대해 해관1897에서 운영하는 스낵푸드존에서 판매가능한지 검토한 후 정식 메뉴로 판매하고, 아니라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문화재 야행 판매부스에 서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도 좋아하는 디저트 메뉴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목포의 맛을 브랜드화해 목포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